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61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1월 25일 (음력 12월 20일) 금요일

한전공대 입지선정 임박... '현장 실사' 마쳐



한전공과대학(일명 켈코텍 · Kepco Tech) 입지 선정 심사위원들이 24일 오후 전남 나주시 빛가람 동 송림제에서 전남도가 제출한 한전공대 후보지 현장 실사를 하고 있다.



한전공과대학(일명 켈코텍 · Kepco Tech) 입지 선정 심사위원들이 24일 오전 광주 북구 과학기술원 교수아파트 옥상에서 광주시가 제출한 후보지 현장 실사를 하고 있다.

입지 선정 심사위 광주 3곳 · 나주 3곳 방문 오늘 2단계 최종 심사 한 후 28일 발표 예정

한전공과대학(일명 켈코텍 · Kepco Tech) 입지 선정의 분수령이 될 후보지별 현장 실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향후 실사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한전공대 입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6곳에 대한 현장 실사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 북구 '첨단 3지구' 현장 브리핑을 시작으로 개시됐다.

현장 실사에는 한전 용역사 심사위원회에 소속된 19명의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 2명 등 총 22명이 참여하고 있다.

심사위는 오전에 광주지역 후보지 중, '북구 첨단3지구'와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남구 송촌보 일원' 등 총 3곳을 방문했다.

오후에는 전남지역 후보지 3곳이 물려 있는 나주를 방문했다. 일정은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을 시작으로 산포면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전남도농업기술원 일대를 실사했다.

심사위는 현장에서 각 지자체가 선정한 후보지별 1차 조망점에서 브리핑을 받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이후 2차 조망점으로 이동해 부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각 지자체가 선정한 조망점은 후보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아파트와 건물 옥상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현장에서 후보지별 접근성, 정주여건, 사회 간접자본시설 인프라, 산화

연 연계성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현장 실사를 마친 심사위는 총 6곳의 후보지에 대해 1단계 심사를 통해 광주 1곳, 전남 1곳 등 총 2곳으로 압축하고, 25일 2단계 최종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1단계 심사에서는 입지여건 등의 평가 항목에 총 65점을, 2단계 심사에서는 경제성 등을 평가해 총 35점을 적용한다.

심사위는 25일 1·2단계 점수를 합산해 공대 입지를 낙점하고, 평가표를 봉인한 뒤 28일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과와 확정된 공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일 지자체별 후보지 제안이 마감된 가운데 광주시는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3지구와 남구 대촌동 에너지밸리산단, 남구 송촌보 일원 등 3곳을 최종 후보지로 신청했다.

해당 추천 부지는 접근성, 정주여건, 산화연과의 연계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남도는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과 혁신도시 인근 산포면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전남도농업기술원 등 3곳을 후보지로 제안했다.

나주시의 후보지 3곳은 국·공유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부지 매입이 용이하고 신속한 인허가 추진, 균형발전,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성공적인 혁신도시 시조 2' 견인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은홍 · 김정환 기자



대리만족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손혜원 의원무소속·마포을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을 향해 "0세와 도건행정을 반대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관 기자회견에서 "서신은 금 지구에 3000여대의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난개발을 획책할 때, 정중득 전 목포 시장과 함께 다닌 사람이 누구였느냐며 "그어 이없는 도건 행정에 함께 한 사람이 박지원 의원이라는 것은 목포 시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손 의원을 향해서는 정치적 공방을 멈출 것을 호소드린다 고 말했다.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윤 원내대표는 목포인주 시민운동협의회 출신의 목포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출신이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본다.

신봉우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박 의원도 건행정에 적극 관여를...



나 그런 사람인데...



숨이 다 후련하네

서은홍 기자

광주시 벼 재배농민 월급제 5개 자치구로 확대

광주시가 지난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범 운영한 농업인 월급제를 올해부터 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

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

월급제 시행 대상은 광주지역 14개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양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가운데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다. 재배면적이 최소 3000㎡에서 최고 3만㎡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월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20일까지 해당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농가는 농협과 약정체결을 통해 그동안 지역농협에서 한꺼번에 지급 받았던 수매대금을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20만~180만원을 월급형식으로 나눠 받게 된다.

광주시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5000여 만원을 투입해 월급제 운영에 따른 이자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농협이나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가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농업인 영농의욕 고취, 농가부채 감소 등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부터 전체 자치구로 대상을 확대한 만큼 많은 농가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벼 수확대금 매월 월급처럼 나눠 지급

광주시 예산 5000만원 투입 이자 지원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농협 광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5개 자치구, 농협 광주본부 및 14개 지역농

협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를

「광주교육 청렴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광주광역시교육청

The 청렴농하면 더 행복해요!

